논어 16편 계씨 6장 · 원문·풀이

孔子曰：「侍於君子有三愆：言未及之而言，謂之躁；言及之而不言，謂之隱；未見顏色而言，謂之瞽。」

독음 · 공자왈 시어군자유삼건 언미급지이언 위지조 언급지이불언 위지은 미견안색이언 위지고

쉬운 풀이(요약) · 어른을 모실 때 말할 때가 아닌데 말하면 조급함이고, 말해야 할 때 침묵하면 숨김이며, 표정을 살피지 않고 말하면 눈먼 태도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孔 구멍 공 공 / 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侍 모실 시 시

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君 임금 군 / 有 있을 유 / 三 석 삼 삼

愆 죄 건 건 / 言 말씀 언 언 / 未 아닐 미 미 / 及 미칠 급 급

之 갈 지 / 而 말이을 이 / 謂 고할 위 위 / 躁 떠들 조 조

不 아닐 불 / 隱 숨을 은 은 / 見 볼 견 견 / 顏 얼굴 안

色 빛 색 색 / 瞽 소경 고 고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